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 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 119:50)

★금주의 읽을 성경: 겔21장~43장 *요 절:겔34:26 *찬송가:481장(주여 복을 주시기를)

★ 금주의 성경 공부: 성경 개관(概觀)/[35] 마태복음의 파노라마(panorama)

“마태복음의 장면”: 1) 왕으로 오심(마1:1- 2:23)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요한 골자는, 나사렛 예수는 모세와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이니라”(미 5:2). 탄생하실 아기 예수는 이사야가 미리 옛적에 예언한 “아들”로서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 이시다(사9:6). 세계의 모든 지도와 모든 일력(日歷)은 그리스도의 탄생지와 탄생일을 가르쳐 준다. 예수님은 헤롯왕 당시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우리는 이 뚜렷한 사실을 밀바침해 주는 지명과 연대를 잘 알고 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옛날에 옛날에 ~”하는 식으로 전설적으로 시작됨이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에 라는 확실한 사실을 들어 말하고 있다. 그 동네는 오늘날도 그 곳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시기 또한 “헤롯왕때~”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를 통해 헤롯왕은 분명한 인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악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의심할 것이 없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비평가나 불신자라 할지라도 의심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역사의 확고한 토대 위에 기록된 것이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화 속에 두는 것이 아니요 실제적인 사실에 두는 것이다.

금주의 기도제목

▶ 목회자를 위한 기도

1. 영육간 강건하게 하소서.
2. 7배나 더한 영력을 주소서.
3. 신실한 부교역자의 청빙을 위하여

▶ 교우들을 위한 기도

1. 내 신앙을 다시세우도록 열심 내도록
2. 가족 구원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3. 몸이 아픈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 교회 각 기관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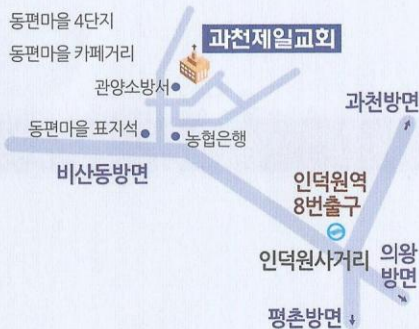
1. 각 기관에 많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2. 주일학교, 중 고등부 계속 이어져 가도록
3. 각 기관이 다시 세워 지도록

▶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1. 우리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2. 지옥 보내서는 안될 자 한 사람 꼭 구원케 하소서.
(이름 부르며 기도)
3. 김남수(필리핀), 박원철(필리핀), 정성권(태국)
중국가정교회(엠마오선교회), 울진선교회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국가안보, 국내 경기회복, 동성애, 차별금지법 폐지, 민족 복음화, 국민 통합, 국회가 여야 하나되어 나라와 백성만 위하도록, 위정자가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도록



예배 시간 안내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본	당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00	본	당
주일 학교	오전 10:00	교	육 관
수 요 예 배	오후 4:30	본	당
새 벽 예 배	오전 5:30	본	당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본	당



표어 바른 신앙 · 바른 교회 · 바른 생활

“무지한 자들이 들으라” (야고보서4:13-17)

[전주 설교임]

† 오늘의 말씀

13절에 “들으라~ 이(利)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제 마음, 제 뜻 대로 계획하고 살아 가려 합니다. 근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재앙들을 보며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네팔의 갑작스런 대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며 대 자연의 재앙 앞에 더욱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앞에 그것을 막을 자 어디 있으며,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제가 최고인 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인생의 무지함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들으라 경고 하십니다.

1) 우리의 남은 때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니면 내일, 이달 아니면, 다음달,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고 앞날은 보장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남은 인생의 때를 알고 있듯이 말합니다.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한 내일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잠27:1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이라는 시간을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시편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90:12). 우리는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2) 우리의 계획과 행위가 선 한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일년을 유하며 이를 보리라”(13절)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하루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옳게 세운 것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의 하는 일에 신앙적, 영적 자세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즉 우선 순위가 잘못되면 선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나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근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6:33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전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합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에 관계없는 일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3) 우리 자체가 안개 같은 자임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된 인생관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14절). 하나님은 지혜로우신교로 인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하여 예측 하지 못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이 살 동안의 일조차도 미리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잠시 보이긴 하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있는지 없는지 확신 할수도 없으며, 또 곧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으므로 삶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알 수는 있으나 언제 안개가 흩어져 버릴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마치 이 안개의 흩어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오전 11시

인도 : 송태섭목사

예배의부름	-----	인도자
♠ 찬송	----- 34장(전능 왕 오셔서)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교독문	----- 십계명 -----	다같이
찬송	----- 82장(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	다같이
기도	-----	김기훈장로
성경봉독	----- 시편91:1-7 (구약 869쪽) -----	인도자
설교	----- "전능자그늘아래 보호받는 행복" -----	송태섭목사
찬송	----- 495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다같이
헌금기도	----- (헌금은 헌금함에) -----	허벽목사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	인도자
♠ 찬송	----- 6장(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같이
♠ 축도	-----	송태섭목사

(♠ 다 일어서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 오후 2시

경배와찬양	----- 더 콜링 찬양단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계시록7:9-14(신약 406쪽) -----	인도자
설교	----- "흰 옷 입은 자의 찬송" -----	허벽목사

수요예배 | 오후 4시 30분

찬송	-----	다같이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1:12-17(신약337쪽) -----	인도자
설교	----- "직분의 은혜" -----	허벽목사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30분

찬양인도	-----인도자
말씀인도	-----허벽목사
기도회인도	-----허벽목사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30분

인도	-----허벽목사
말씀	-----옴기강해



“예배 시간 모임”: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시간에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 하세요.

■올한해 신앙목표: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위하여]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81:10)
(기도의 입, 찬송(감사)의 입, 증거의 입)

★9월은 하반기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대상자를 정하고 위하여 기도합시다.

1) 새벽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30분에 드립니다.

*과천에서는 새벽 5시에 차가 운행합니다.

2) 오늘 예배는 송태섭 목사님(수원 경원교회 당회장)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3)담임목사님의 수술은 교우들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퇴원은 () 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4)수요 예배와 새벽기도는 당분간 쉽니다.

5)총회 헌금(세례교인 5천원 이상)을 세례 받은 성도는 꼭 해 주십시오.

6) 자신과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와 성경읽기, 예배에 힘쓰십시오.

★교회 홈페이지 (www.gcjeilchurch.org)

*주일 설교와 교회소식등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강단에 꽃을 봉헌하고 싶은 성도는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 농협, 211084-51-052671, 과천제일교회

★자 차로 오신 분은 가실 때 차 번호 뒷 자리 숫자를 허성덕집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주의 요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겔34:26)

안내 및 봉사위원

◆다음주 기도 :

◆교회 청소:청장년부

◆주방봉사 :김남식,김성자

◆안내: 류정자,김선남

(다음주)여전도회(9/18) (다음주)김선남,하금단(9/3)

(유아실)김은미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사무장로

허벽
김기훈

성가지휘
성가반주
예배반주

허성균
강민희
김해림